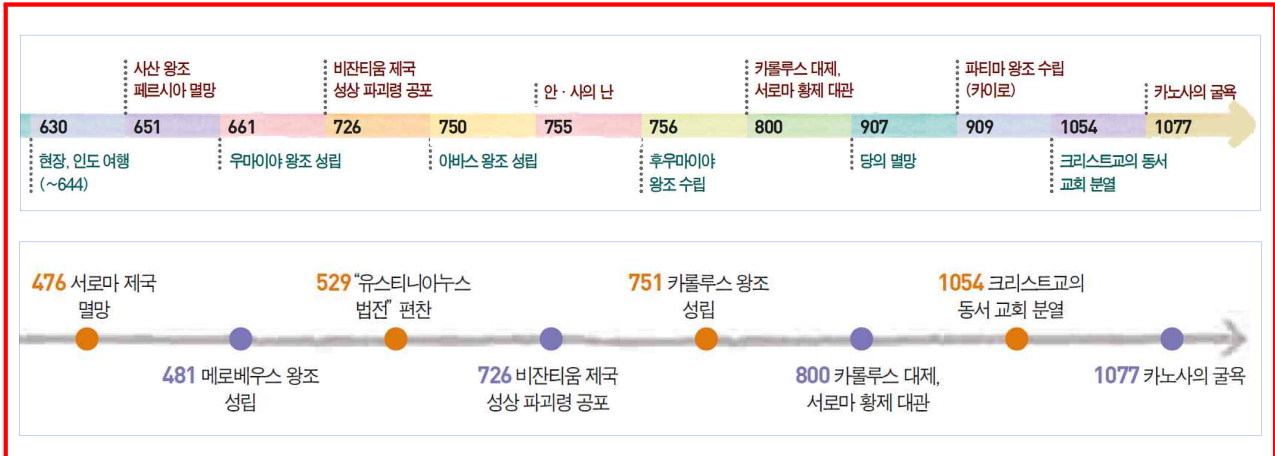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원시 게르만 사회와 게르만족의 대이동]

01. 원시 게르만 사회

- 인도·유럽 어족, **발트해 연안(원주지)**, 수렵·목축 및 농경에 종사
- 『갈리아 전기』(카이사르), 『게르마니아』(타키투스)에 생활 모습 묘사
- 척박한 기후 조건으로 농경 발달이 미약했기 때문에 토지를 공유해 공동 경작하는 공동체 유지
- **종사 제도**(Gefolgschaft, 從士 制度) 발달
- 3세기 이후 로마 제국에서 콜로누스(colonus)나 용병으로 활동

02. 게르만족의 이동(4~6세기)

1) 배경

- 로마 제국의 국경 수비 약화
- 인구 증가로 인한 경작지 부족

2) 경과

- **4세기 후반 훈족의 흑해 연안 진출**
: 프랑크족의 이동
: 반달족의 이동
: 서고트족의 이동



<게르만족의 대이동>

3) 결과

- 서로마 제국 멸망(476) → **중세의 시작**
- 게르만 왕국 성립 → 로마·게르만 문화권 형성
- 북아프리카에 **반달 왕국 성립**(카르타고 점령, 435~534)

【★프랑크 왕국(Regnum Francorum)의 성립과 발전】

01. 성립

- 본거지를 유지한 채 단거리 팽창 이동으로 게르만족의 전통 유지
: 갈리아 지방 정착
- 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하여 로마인과 융화
- 비잔티움, 이슬람의 직접적인 공격을 받지 않는 지역에 건국

02. 발전

1) 메로베우스(Meroveus) 왕조(481~751)

- 클로비스(재위 481~511)
: 왕조 개창, 갈리아 중부까지 영토 확장(486)
: 로마 가톨릭교(아타나시우스파)로 개종(496)
↳ 중세의 중심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궁재(Majordomus) 카롤루스 마르텔루스(680~741)
: 피핀 2세의 아들, 권력 투쟁 승리 → 실권 장악(717~741), 프린스의 호칭 획득
: 투르 · 푸아티에 전투(732)에서 이슬람 군대(우마이야 왕조) 격퇴 → 로마 교황청의 제휴 시도

2) 카롤루스(Karulus) 왕조(751~843)

- 피핀 3세(재위 751~768)
: 카롤루스 마르텔루스의 아들, 궁재 계승(741~751)
: 킬데리쿠스(Childeric, 힐데리히) 3세(재위 743~751)를 폐위하고 왕조 개창(751)
↳ 교황 자카리아스(Zacharias, 재위 741~752) ~ 프랑크 왕국의 유대 강화
↳ 롬바르드 왕국을 정벌하여 라벤나 지방을 교황청에 기증(756) → ‘로마인들의 보호자’
- 카롤루스 마그누스[Carolus Magnus(대제), 재위 768~814]
: 수도 아헨(Aachen)
: 서로마의 영토 회복, 롬바르드 왕국 정복, 이베리아반도 진출[론세스바예스 전투(779), 778~802], 동유럽의 작센족 정복(정복지에 교회 건설 → 가톨릭교로 개종)
: 교황 레오 3세로부터 서로마 황제 대관(800), 임페라토르 · 아우구스투스(Augustus)의 칭호
: 통치 제도, 군사 제도 정비
: 중앙 집권화 시도(백 · 공), 순찰사의 지방 파견
: 비잔티움 황제를 대신해 로마 교회의 새로운 보호자 역할

3) 카롤루스 르네상스(Carolus Renaissance)

- 카롤루스 마그누스의 문예 부흥 노력
- 궁정 학교 설립, 학자 우대 정책[앨퀸(Alcuin)], 라틴어 문법과 논리학 교육
- 수도원 중심의 학문과 고전 연구 후원
- 중세 유럽 문화의 기틀 마련(로마 문화 + 크리스티교 + 게르만 문화)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프랑크 왕국의 분열]

01. 배경

- 카롤루스 마그누스 사망(814)
↳ 고유의 분할 상속에 따른 내분 발생
- 왕권 약화, 지방분권화 경향 출현

02. 결과

- **베르딩 조약(843)**
: 중프랑크 왕국, 서프랑크 왕국, 동프랑크 왕국 성립
- **메르센(메이르센) 조약(870)**
: 이탈리아(중프랑크 왕국), 독일(동프랑크 왕국), 프랑스(서프랑크 왕국)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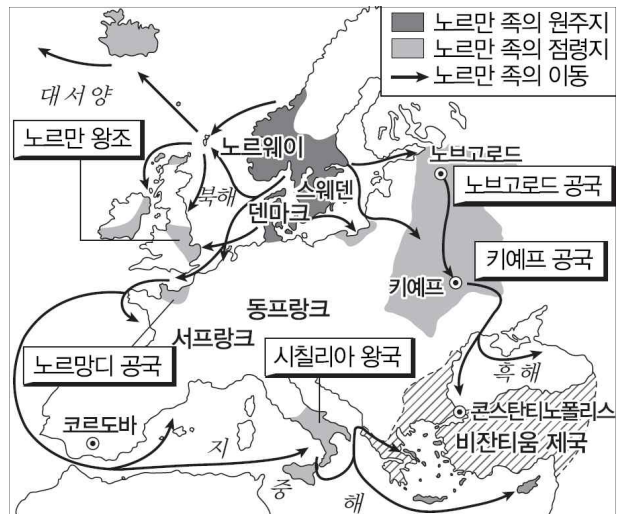
[노르만족의 이동]

01. 원주지(原住地)

- **스칸디나비아 지방** 등에 거주
- **9세기 말**부터 유럽의 해안과 내륙으로 이동

02. 왕국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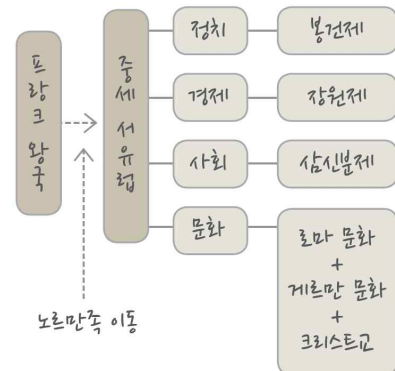
- 프랑스 침입
: **노르망디 공국**(Duché de Normandie, 롤로, 911~1259)
↳ 윌리엄 공(재위 1066~1087), 잉글랜드 정복 → **노르만 왕조 개창(1066~1154)**
- 지중해 진출
: 나폴리 왕국
: 시칠리아 왕국
- 러시아 진출
: **노브고로드 공국(862~1136~1478)**
: 키예프 공국(880~1283)
- 원주지
: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건국



〈노르만족의 이동〉

03. 결과

-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촉진**



〈중세 서유럽 사회의 특징〉

서유럽 봉건 사회의 형성

[봉건적 정치 제도의 형성]

01. 배경

- 프랑크 왕국의 분열로 중앙집권적 정부의 부재
- 노르만족, 마자르족, 이슬람 세력 등의 유럽 침입** → 전사 계급(기사)의 성장과 예속 농민의 발생
- 새로운 사회 질서, 제도의 필요성 대두

02.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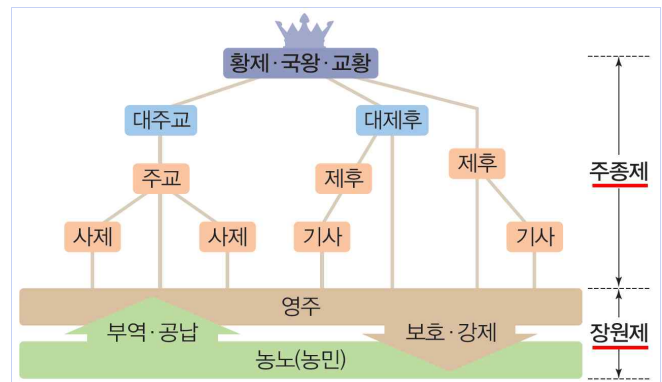
<기사 서임식>

- 9~11세기 형성
- 지방 분권적** 사회 질서
- 종사제(게르만) + 은대지제(로마)
- 유력자를 찾아 충성 맹세
- : 외적의 침입, 기근으로부터 자신을 보호받는 과정에서 형성
- 영주들은 대규모 **봉신(封臣, vassal)**들로 구성된 전투 집단 조직
- : 기사도 집단으로 변화

03. 구조

1) 주종제(主從制, 정치)

- 주군 ~ 봉신(가신)의 쌍무 계약적 주종 관계**
- : 주군의 봉토(封土) 수여
- : 봉신(가신)의 충성 서약과 군사적 봉사
- : 의무 불이행 시 파기 가능, 계약 관계 세습
- 영주(봉신·가신)의 **불입권(Immunity)**
- : 영지(장원) 내의 재판권과 징세권 행사
- : 지방 분권화 촉진



<봉건 사회의 구조>

2) 장원제(莊園制, 경제)

- 영주[성(城), 싸우는 자] + 농노[오두막, 일하는 자] + 성직자[교회당, 기도하는 자]
- 영주 직영지·농민 보유지(삼포제로 경작), 공동 방목지(목초지), 삼림 등의 토지로 구성
- 개방 경지 제도(Open Field System)**

삼포제(三圃制)

중세 서유럽은 토지가 비옥하지 못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누어 해마다 돌려 가며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이를 삼포제라 한다.

3) 농노에 대한 경제 외적 강제(Non-economic compulsion)

- 농노(영주의 지배를 받는 예속 농민, serf)
- : 영주의 직영지 경작(부역), 공납으로 현물 납부
- : **군사 복무 無**
- : 거주 이전의 자유 無, 결혼과 재산 소유 가능(결혼세·상속세)
- : 영주의 시설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비용 부담



프랑크 왕국의 분열과 노르만 왕조의 개창(『금성·미래엔 교과서』)

서프랑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파리의 백작 위그 카페를 왕으로 선출하여 카페 왕조 시작(987~1328) 왕권이 미약하여 지방분권화 경향 → 제후들의 세력 강대
동프랑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오토 1세(재위 936-973) : 마자르 족(레히펠트 전투, 955)과 슬라브 족의 침입 저지, 이탈리아 내란 진압(교황 지원) : 로마 제국의 황제로 대관(962) →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962~1806)
노르만 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노르만디 공국의 윌리엄 공(기욤 2세)이 잉글랜드 정복 ↳ 왕조 개창(1066~1154) 강력한 왕권에 입각한 봉건제 수립, 솔즈베리 서약(모든 봉신의 주군 자임, 1086) 뉘즈데이 북(Domesday Book, 토지 대장, 1086)

주종 제도 - 기사 복무에 대한 규정

왕의 귀족과 모든 봉신은 왕이 소집하는 경우 왕 앞에 출두해야 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40일 낮과 밤 동안 각자가 의무를 지고 있는 숫자의 기사들을 데리고 군역을 수행해야 한다. 왕은 원할 경우 그리고 필요한 경우 이 군역들을 징발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왕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비용으로 40일을 더 복무하게 하고자 붙잡아 두기를 원하더라도 그들이 원하지 않으면 남아 있을 의미가 없다. 그러나 만약 왕이 왕의 비용을 들여 왕국을 방어하기 위해 그들을 머물게 하기를 원하면, 그들은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한다.

- 『서양 문명의 뿌리』

장원과 중세 농노들의 일상생활



개념 Check

- ① 중앙아시아 일대에 살던 유목민인 ()이 동부 유럽으로 이동해 오자 게르만족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 ② 카롤루스 마르텔루스는 피레네 산맥을 넘어온 이슬람 군대를 () 전투에서 격퇴하였다.
- ③ 교황의 지지 속에 ()은 카롤루스 왕조를 개창하였다.
- ④ 교황 레오 3세는 800년에 ()를 서로마 황제로 대관하였다.
- ⑤ 카롤루스는 궁정 학교를 세우고 고전을 간행하는 등 학문을 진흥시켰는데, 이를 ()라고 한다.
- ⑥ 서유럽의 주종제(主從制)는 주군과 봉신 중 어느 한쪽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깨질 수 있는 () 계약 관계였다.
- ⑦ 장원 내의 ()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는 신분으로서 영주의 허락 없이는 장원을 떠날 수 없었다.
- ⑧ 중세 서유럽은 토지가 척박하여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로 나누어 해마다 돌려가며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이를 ()라 한다.

유형 CHECK!!

01

밑줄 친 '그의 아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9월 모의평가]

진정한 크리스티교도로 칭송받는 왕이 플라두스를 파견하였다. 플라두스는 라벤나에서 롬바르드족 대표들을 만나 펜타폴리스, 에밀리아 등 여러 곳을 돌며 충성 서약을 받아 냈다. 그런 후 왕의 뜻에 따라 라벤나 등지를 교황에게 넘겨주었다. 이는 선대 교황이 새로운 왕조의 개창을 승인해 준 것에 대한 보답이었다. 이에 교황은 왕에게 '로마인들의 보호자'라는 칭호를 수여하며 감사를 표하였다. 이후 수십여 년이 지난 교황 레오 3세의 재위 시기에도 그 왕은 사람들로부터 여전히 그의 아버지를 이을만한 탁월한 지도자로 칭송받았다.

- ① 노르망디 공국을 세웠다.
- ② 보름스 협약을 체결하였다.
- ③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았다.
- ④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하였다.
- ⑤ 투르·푸아티에에서 이슬람군을 물리쳤다.

02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수능]


다마스쿠스의 궁정에서 축출된 일족이 코르도바를 수도로 삼아 이베리아반도 북동부로 세력을 확장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도시들은 피레네산맥 너머 파더보른의 왕궁으로 사신들을 급파하였다. 이들은 왕국의 통치자 (가)에게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당신의 부친께서는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고 이탈리아에서 적들을 격파하였습니다. 부친의 공덕을 이은 왕국의 유일무이한 왕이시여,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저 위협적인 군대를 격파한다면 신의 평화를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 ① 베르딩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② 로마 가톨릭교로 개종하였다.
- ③ 메로베우스 왕조를 무너뜨렸다.
- ④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⑤ 궁정 학교를 세워 고전 연구를 후원하였다.

03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6월 모의평가]

세계사 신문	000년
<<특집 기획>> 클로비스,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다	
(가)의 클로비스가 마침내 로마 가톨릭으로 개종하였다. 클로비스는 개종을 통해 로마 주민과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길을 닦은 셈이다. 앞으로 로마 문화와 게르만 문화의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세례를 받는 클로비스

- ① 12표법을 제정하였다.
- ② 상수시 궁전을 건립하였다.
- ③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다.
- ④ 군사적 봉건제인 티마르제를 실시하였다.
- ⑤ 투르·푸아티에 전투에서 이슬람군을 물리쳤다.

04

(가) 왕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2-수능 특강 p.87, 1번]

(가)을/를 개창한 클로비스가 죽자 왕국은 그의 네 아들들 사이에서 분할되었다. 라인강 쪽의 아우스트라시아, 북부 갈리아 지방의 네우스트리아, 론강과 사온느강 유역의 부르군트, 남부 갈리아 지방의 아퀴텐느 지역으로 분할되었다. 그러나 왕국의 분할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프로방스 등을 정복하여 영토가 더욱 확장되었다.

- ① 베르됭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② 노브고로드 공국이 세워졌다.
- ③ 스파르타쿠스의 난이 일어났다.
- ④ 투르·푸아티에 전투가 발생하였다.
- ⑤ 이탈리아 중부 지역이 교황령으로 기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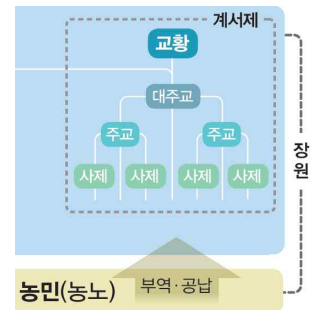
크리스트교 세계의 성립과 발전

★중세 교회의 발전

01.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장

1) 배경

- 수도승들의 헌신적 봉사로 대중 확산
- 교회는 대토지 소유를 통한 세속적 권력 형성
- **성직 계서제도(봉건적 주종관계 형성)**
: 교황 ⇨ 대주교 ⇨ 주교 ⇨ 교구 성직자(사제)



2) 과정

- 교구(敎區, Diocese) 형성
: 로마 말기 5대 교구(로마, 비잔티움, 안티오크,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 7세기 이슬람 세력의 확대로 인해 로마와 콘스탄티노폴리스 등 2대 교구로 축소
- 동·서 교회의 대립 격화
: **726년 성상 파괴령**
: **1054년 동·서 교회의 분열**
↳ 로마 가톨릭교회(로마 교황 중심)
↳ 그리스 정교회(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지배 → 정교일치)

✿ 성상 숭배 금지령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재위 717~741)가 내렸는데, 정통의 수호를 명분으로 하였지만, 서로마 교회에 대한 비잔티움 제국 황제의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3) 왕권과 제휴

- 프랑크 왕국, 신성 로마 제국과 제휴하여 비잔티움 황제의 간섭에서 탈피
: **496(클로비스의 개종), 756(피핀의 교황령 기증), 800(카롤루스 대제 대관), 962(오토 대제 대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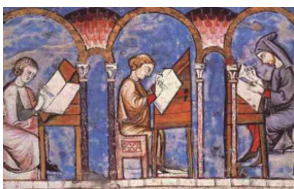
02. 로마 가톨릭교회의 개혁 운동

1) 교회의 세속화

- 봉토와 기증받은 토지 등을 기반으로 세력 확대
- 세속 권력이 성직자 임명권 차지, 성직자 기강 붕괴, 성직자의 혼인, 성직 매매 등 부패와 타락

2) 수도원 운동(10세기)

- **클뤼니 수도원(L'Abbaye de Cluny, 910)** 중심
: 교황 직속, 세속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고 **교회 정화 운동 전개**
: 청빈과 순명, 정결 등 베네딕트의 계율 준수 → 교황 배출(그레고리우스 7세, 우르바누스 2세)



<수도원 수사들의 필사 작업>

✿ 수도원(monasterium)의 생활

- 엄격한 계율 중시
- 학문 연구 권장, 학문과 교육의 중심지
- 고전 필사 작업으로 고전의 보존과 연구
- 기도와 노동의 공동생활로 농업수공업 기술 향상
- 의료 시설과 사회 시설 운영

크리스트교 세계의 성립과 발전

[동·서 교회의 비교]

구분	서로마 교회	동로마 교회
종교	로마 가톨릭	그리스 정교회
공용어	라틴어	그리스어
문화권	게르만족(서유럽) 전파 → 게르만 문화권	슬라브족(동유럽) 전파 → 비잔티움 문화권
경제	장원제 발달, 자연 경제	상공업 발달, 동서 중계 무역으로 융성
정치	지방 분권적 봉건제, 정교분리	전제군주정, 정교일치(황제 교황주의)

[★교황과 황제의 대립]

01. 배경

- 11세기 교황 주도로 세속 권력으로부터의 탈피 시도
- **성직자 서임권(= 주교 서임권) 분쟁**(그레고리우스 7세 ↔ 하인리히 4세)



〈카노사의 굴욕〉

02. 카노사의 굴욕(Humiliation at Canossa)

- **교황 그레고리우스 7세**의 교황령(세속 군주의 성직자 서임 금지, 성직자 금혼 등, 1075)

우리는 황제와 왕을 포함한 모든 평신도가 성직자에게 감독의 직책, 대수도원 또는 교회에 대한 서임을 줄 수 없음을 법령으로 선포하였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평신도로부터 서임을 받더라도 그 서임은 효력이 없는 것이며, 스스로 서임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파문 상태에 처할 것이다.
-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 훈령』

- **하인리히 4세(신성 로마 제국, 재위 1053~1105)**의 반발과 그레고리우스 7세의 황제 파문(1076)
- 황제가 이탈리아의 카노사 성(城)으로 교황을 찾아가서 사죄하여 파문 해제(1077)

03. 보름스 협약(Concordat of Worms, 1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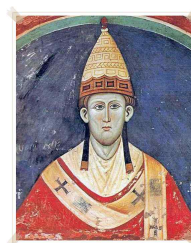
- 하인리히 4세의 교황 파문(1080) → 클레멘스 3세 옹립(대립 교황) → 서임권 분쟁 지속
- **교황 칼리스토스 2세(재위 1119~1124) ~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하인리히 5세(재위 1105~1125)**
: **교속 서임권 투쟁의 일단락** → 신성 로마 제국 내의 주교는 교회법에 따라서 선출된다.

독일 왕국에서 주교와 수도원장의 서임은 그대(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입회하에 이루어질 것이다. ……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나, 하인리히는 모든 서임권을 성스러운 로마 가톨릭교회에 바친다.** 그리고 **짐의 왕국과 제국 내 모든 교회에서 교회법에 따른 주교와 수도원장의 선출과 성직 수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동의한다.**

- 보름스 협약

04. 교황권의 전성기

- 교황 **인노첸티우스 3세**(재위 1198~1216, = 인노첸시오 3세)
: 교황권의 절정
- 프랑스 왕 굴복, **제4차 십자군 전쟁(1202~1204)** 단행
- **영국의 존 왕 파문(1209)과 폐위(1212)**
- **‘교황은 해, 황제는 달’**에 비유(1198~1216)



〈인노첸티우스 3세〉

중세 서유럽의 문화

01. 특징

- 크리스트교 중심의 문화 발전으로 자연과학과 기술 퇴보
- 보편적 통일 문화로 인한 민족적 색채 약화
- 관습을 존중하여 권위와 전통이 지배하는 문화

02. 신학(神學)의 발달

- 모든 학문의 중심
- 철학은 신학의 보조 역할(철학은 신학의 시녀)
- 교부(敎父) 철학(patristic philosophy)
: 아우구스티누스(354~430), 『신국론(神國論, De Civitate Dei)』
- 스콜라 철학(Scholasticism)
: 십자군 전쟁 이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영향
: 토마스 아퀴나스(1225~1274), 『신학대전』(신앙과 이성의 조화, 1267) ⇔ 윌리엄 오컴

크리스트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이성을 허용한다. …… 이 가르침 안에 전해지는 진리를 명백히 밝히려고 이성이 이용된다. 신의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되기 때문에 자연히 이성은 신앙에 협력해야 한다. 이성은 신앙에 도움이 되고, 자연에 대한 사랑은 크리스트교의 사랑과 서로 통한다.

-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대전』

03. 교육

- 초기 교회·수도원 중심의 학문 발달
- 12세기 이후 대학 발전
: 라틴어 강의
: 교회나 세속적 권력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치적으로 운영
: 볼로냐 대학(학생 조합, 1158), 파리 대학(교수 조합, 1215)



〈피사 대성당〉

04. 교회와 수도원 건축

- 4~8세기경 바실리카 양식(비잔티움 양식 모방)
- 11세기경 로마네스크 양식
: 두꺼운 벽·돔 + 원형의 아치
: 피사 대성당(1063~)
- 12세기경 고딕 양식
: 높은 첨탑 +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 천국을 향한 중세 유럽인들의 염원 표현
: 샤르트르 대성당(1145~), 노트르담 대성당(1163~), 쾰른 성당(1248)



〈샤르트르 대성당〉

05. 기사도 문학

- 봉건 기사들의 생활상, 기사도 반영, 무훈과 충성을 읊은 이야기와 낭만적 사랑을 노래한 서정시
: 『롤랑의 노래(룬세스바예스 전투)』, 『아서 왕 이야기』, 『니벨룽겐의 노래(게르만족의 전설)』

개념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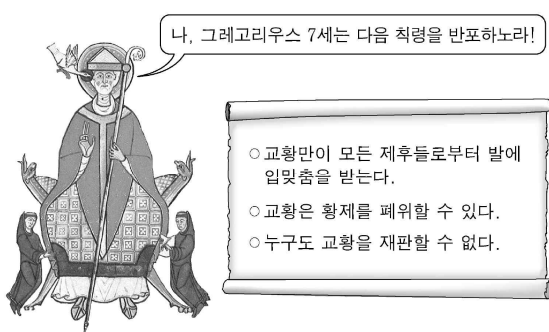
- ① ()년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 레오 3세가 () 파괴령을 내리면서 동서 교회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 ②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는 이탈리아의 () 성(城)을 찾아가 교황에게 사죄하였다.
- ③ 교황과 황제의 서임권 투쟁은 1122년 () 협약을 통해 ()이 서임권을 차지하였다.
- ④ 1267년 ()는 스킴라 철학을 집대성한 『신학대전』을 집필하였다.
- ⑤ 12세기 이후 첨탑과 스테인드글라스를 특징으로 하는 () 양식이 등장하였다.

유형 CHECK!!

01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 ① 계몽사상의 영향을 살펴본다.
- ② 30년 전쟁의 결과를 분석한다.
- ③ 성상 파괴령 반포의 배경을 이해한다.
- ④ 서임권 투쟁의 전개 과정을 조사한다.
- ⑤ 카를루스 르네상스의 내용을 파악한다.

02

다음 칙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수능]

황제 레오 3세는 아래와 같이 칙령을 발표한다.

- 불멸의 신을 형상화하는 것은 신을 인간의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행위이다.
- 성화(聖畵)를 그리는 행위를 신성 모독으로 규정한다.
- 희생 제의(祭儀)를 포함한 모든 이교적 행위를 금지한다.

- ① 동서 교회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 ② 교황의 아비뇽 유수를 초래하였다.
- ③ 보름스 협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 ④ 트리엔트 공의회가 개최되는 배경이 되었다.
- ⑤ 클뤼니 수도원의 교회 개혁 운동을 촉발하였다.

비잔티움 세계의 성립과 발전

[비잔티움 제국(동로마 제국)의 흥망]

01. 4세기

-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콘스탄티노폴리스 건설(324) → 천도(330)
-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 동·서 로마의 분열(395)

02.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재위 527~5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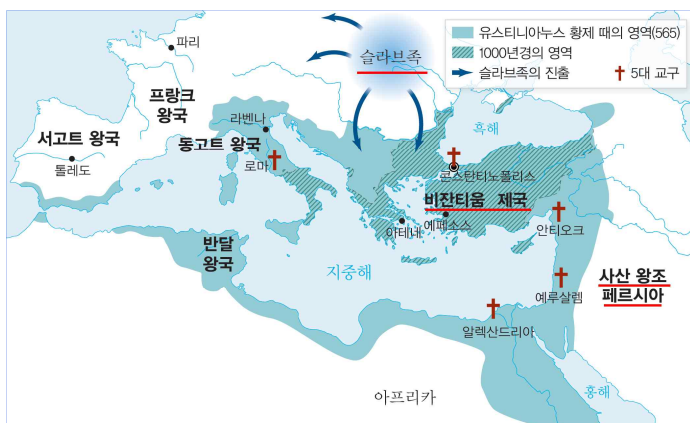
- 니카(Nika)의 반란(532) 진압 이후 행정 개혁과 경제 조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편찬 시작(529)
- 옛 로마 제국의 영토 회복[벨리사리우스(505~565)의 활약]
: 반달 왕국(북아프리카, 435~534) 정복, 이탈리아 장악[동고트 왕국(493~553) 정복]
- 아야 소피아(Hagia Sophia, = 성 소피아) 성당 건축(537)

03. 7~13세기

- 로마 영토 지역으로 게르만족의 침입
- 7세기 사산 왕조 페르시아(226~651)의 압박으로 시리아, 이집트 상실
- 야르무크 전투(비잔티움 제국·사산 왕조 페르시아 연합 ⇄ 칼리프 우마르 휘하의 군대, 636)
- 9세기 지방 유력자들의 대토지 소유 경향으로 둔전병제(屯田兵制) 붕괴
- 11세기 말 셀주크 튀르크(1037~1242)의 공격
: 알렉시우스 1세(재위 1081~1118) → 서유럽에 십자군 파병 요청
- 제4차 십자군 전쟁(1202~1204) 당시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 → 라틴 제국 건설(1204~1261)

04. 14~15세기

- 거듭된 외침으로 영토 감소, 지방 유력자들의 봉건 세력화로 황제권 약화
- 오스만의 공격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 함락(1453)



✿ 비잔티움 제국의 영역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에 북아프리카, 에스파냐 남부, 이탈리아 등 과거 지중해 연안의 옛 로마 제국을 재건할 정도로 기세를 떨쳤으나, 그 후 동(東)과 서(西)에서 여러 세력들이 진출하여 점점 쇠퇴하였다.

05. 비잔티움 제국의 역사적 의의

- 그리스교 세계를 지키는 방과제 역할을 하면서도 서유럽 세계와 경쟁
- 르네상스에 영향
- 동유럽 슬라브 문화권 형성에 기여

비잔티움 세계의 성립과 발전

★비잔티움 제국의 정치와 사회

01. 황제 교황주의

- 오리엔트의 전제 군주정 도입
-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황제가 교회를 지배(정교일치)

02. 군관구 제도와 둔전병 제도

- 이라클리우스 황제(재위 610~641),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전쟁에 대비하여 **군관구(軍管區)** 설치
- 31개의 군관구, 황제가 임명한 사령관[스트라테고스(strategos)]의 군사·행정·사법권 행사
- **둔전병제(屯田兵制, colonial militia)** 실시

🌸 둔전병제

군관구제에서 군역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그 대가로 토지를 주고, 아들이 계속 군역에 종사한다는 조건에서 토지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자영농을 육성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비잔티움 제국의 경제]

01.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 동서 교통의 중심지이자 상공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

02. 상공업의 발달

- 산업 통제와 해군력으로 교역 보호
- 페르시아의 견직물 공업 전래, 금속·유리 제품 생산 발달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

01. 특징

- 그리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융합
- **그리스어가 공용어**, 그리스 고전의 연구·보전 → **르네상스 자극**

02. 법률

-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로마법 대전) 편찬

03. 비잔티움 양식

- 외부의 웅장한 **돔**과 내부의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아야 소피아 성당, 537)



〈아야 소피아(Hagia Sophia)〉



04. 영향

- **슬라브족에게 전파되어 슬라브 문화권 형성**
: **키릴 문자(Cyrillic alphabet, 키릴로스 형제)**
: 그리스 정교 수용
- 동유럽의 문화 발전에 기여(**키이우의 성 소피아 성당** 등)



교황의 황제 폐위와 파문

내 권위와 온전함을 확신하니 이제 나는 전능한 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황제 하인리히(하인리히 3세)의 아들, 하인리히(하인리히 4세)가 독일과 이탈리아에 있는 그의 왕국을 상실하였음을 선언하노라. 나는 이것을 당신의 권위에 따라서 그리고 당신의 교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였노라. 그가 반역하였기 때문에 그는 교회로부터 스스로를 잘라 내었으며 교회를 조각내고자 하였도다. 그러므로 당신의 권위에 따라서 그를 저주 하에 놓노라.

- 올리버 조지프 대처 외, 『중세사 원전』

인노켄티우스 3세의 선언



<교황에게 고개를 숙인 황제>

창조주는 위대한 두 광체를 설치하였다. 더 위대한 광체(해)는 낮을 지배하고 약한 광체(달)는 밤을 지배한다. 마찬가지로 보편적 교회의 영역에도 창조주는 위대한 두 권위를 임명하였다. 더 위대한 것이 영혼을 지배하고 약한 것이 육체를 지배한다. 이 두 권위란 교황권과 황제권이다.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

- ① 황제는 군사적·정치적으로 최고 지배자였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대해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황제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의 수석 대주교를 임명하는 권한과 종교 교리상의 논쟁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황제를 위해 공직에 봉사한다는 것은 성직에 임명되는 것이었으며, 공직에서 떠난다는 것은 성직을 포기하는 것이었다.
② 콘스탄티노폴리스에는 전 세계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아라비아 상인은 중국의 비단, 인도의 향신료, 페르시아의 양탄자를 가지고 들어왔으며, 러시아 상인은 흑해를 통해 가죽, 모피 제품, 노예를 가지고 들어왔다.

슬라브 문화권

Table with 2 columns: Slavic Tribes (서슬라브족, 남슬라브족, 동슬라브족) and Cultural/Political Features. Includes an image of a church with green domes.

개념 Check

- ①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황제가 교회의 수장을 겸하는 ()가 발달하였다.
- ②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인 () 황제 때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 ③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외침에 대비하기 위해 군관구제와 ()제를 실시하였다.
- ④ 비잔티움 양식의 건축으로는 콘스탄티노폴리스의 () 성당이 대표적이다.
- ⑤ 비잔티움 제국은 1453년 ()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유형 CHECK!!

01

(가) 제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9월 모의평가]



♥ 20개

여기는 키예프!
아름다운 성 소피아 성당 앞에서!

댓글 3개

○○: 이스탄불에서 같은 이름의 건축물을 본 적이 있어.

↳ □□: 그 건축물은 (가)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대성당으로 만들어졌는데, 웅장한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로 유명하지!

○○: 키예프랑 이스탄불의 역사가 궁금해지네.

- ① 티마르 제도를 시행하였다.
- ② 우즈베크인에 의해 멸망되었다.
- ③ 상트페테르부르크를 건설하였다.
- ④ 우르두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였다.
- ⑤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

02

밑줄 친 '황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제는 재위 초기부터 법전 편찬 작업을 실시하였다. 로마법은 이미 한 세기 전인 테오도시우스 2세 시절 발표된 『테오도시우스 법전』이 있었지만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법전을 만들고 체계화시켰다. 이를 통해 529년에 법전을 편찬하였다. 이어 법률 저작들을 집대성해 기존 학설들을 종합한 『법학개요』를 편찬하고, 법학 교재 『법학통론』을 편찬하였다. 제국 안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최고 권위의 법률, 법과 관련된 학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문헌, 그리고 법학 교육 교재를 확립시킨 것이다.

- ① 대헌장을 승인하였다.
- ② 셀주크 튀르크의 침입을 겪었다.
- ③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실시하였다.
- ④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권위가 약화되었다.
- ⑤ 옛 로마 제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다.

봉건 사회의 변화

[11세기 서유럽 세계]

01. 종교적 상황

- 이베리아반도에서의 크리스티교 재정복 운동(Reconquista, 711~1492) 전개

02. 사회·경제적 상황

- **삼포제의 확산**으로 농업 생산력 증대 ⇨ 인구 증가 ⇨ 개간·개척 사업, 엘베강 동쪽으로 진출

[★십자군 전쟁(Crusades)]

01. 표면적 원인

- 11세기 후반 **셀주크 튀르크의 압박**
: 비잔티움 제국 위협 → 황제 알렉시우스 1세(재위 1081~1118)의 구원 요청
: 시리아, **예루살렘 점령(1071)** → **성지 순례 박해**
- **교황 우르바누스 2세**(재위 1088~1099)
: **클레르몽 공의회(1095)**에서 성지 회복 호소

✿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십자군 전쟁 촉구

동쪽에 있는 형제들에게 급히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튀르크는 이미 여러분들 중 일부가 알듯이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경건한 기도로써 다음을 요청합니다. 즉, 그리스도 전령으로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빈번하게 권유함으로써, 모든 계급의 사람들, 기사와 병사, 부자와 가난한 자로 하여금 여러분의 형제의 땅에서 비열한 종족을 급히 멸절하고, 적절하게 크리스티교인들을 도울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 『프랑스사 문헌 집성』

02. 세속적 원인

- 교황 → 가톨릭교회의 지배 영역 확대
- 왕·봉건 영주 → 새로운 영지 획득
- 상인 → 지중해 무역권의 장악

03. 전개 과정[1096년(이슬람력 489)~1270년(이슬람력 668)]



- **제1차 십자군**(고트프루아, 1096~1099)
: 성지 탈환, **예루살렘 왕국 건설(1099)**
- **제2차 십자군**(중도 회군, 1147~1149)
- **제3차 십자군**[1189~1192(**이슬람력 588**)]
: 아이유브 왕조의 예루살렘 장악
: 살라딘 ⇨ 리처드 1세
- **제4차 십자군**(필리프 2세, 1202~1204)
: 베네치아 상인의 개입
: 콘스탄티노폴리스 점령
: **라틴 제국 건설(1204)**

04. 십자군 전쟁 이후 중세 유럽 사회의 변화

- 교황권의 약화 ⇨ 왕권 강화, 제후·기사 계급의 몰락 ⇨ 장원 경제 체제의 동요
- 동방 교역 활성화 ⇨ 북부 이탈리아 도시의 번영(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배경)
- 이슬람 문화, 비잔티움 문화 ⇨ 북서부 유럽 유입

봉건 사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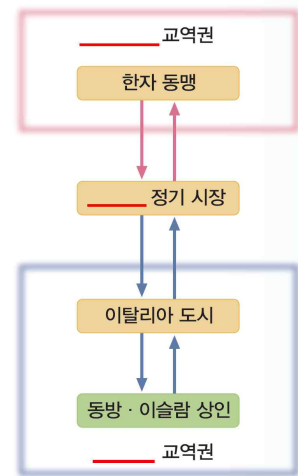
[상업과 도시 발달]

01. 상업 발달

- 봉건제 정착, 사회 안정으로 농업 생산력 증대 → 잉여농산물 증가
- 자급자족의 장원 경제 탈피
 - ↳ 영주의 성과, 교통의 요지 등에 시장 출현

02. 도시의 성장

- 십자군 전쟁(1196~1270) 과정에서 **원거리 교역과 동방 무역 발달**
: 베네치아·제노바(동방 무역으로 번영), 피렌체·밀라노(금융업과 직물업으로 번창)
- 북부 유럽의 함부르크(Hamburg), 뤼베크(Lubeck) 등 도시 성장
: **한자(Hansa, 조합·동료) 동맹(1241)** → 도시 동맹, 해군력 보유, 발트해·북해 연안의 무역 독점
- 플랑드르(Flandre) 지방의 교역 발달, **상파뉴 정기 시장**(북유럽 교역권과 지중해 교역권 연결)



03. 중세 도시의 성격

1) 초기 도시

- 봉건 영주의 간섭
: 도시민에 대한 행정과 사법권
: 특정 물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 행사

2) 자치 도시의 성장

- **도시 시민**들이 국왕과 제휴하여 영주에 대항
- 재력 또는 무력으로 **특허장을 획득하여 자치권 행사**
: 도시법 제정, 시의회 구성, 재판·징세·예산권 행사
- **자유 시민(Bourgeois)의 성장**(도시의 공기는 자유를 준다.)

✿ **아브빌 시 특허장(1370)**

짐은 아브빌 시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일정한 특권을 승인했노라. …… 짐의 도시 아브빌이나 폰티 외 지방의 다른 도시들에서 그 도시들에게 이익이 되거나 그 도시들이 요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부과금이나 부조금 등 어떤 종류의 특별세도 시행하거나 강요하거나 물리거나 부과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시행되거나 강요되거나 물리거나 부과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봉건 사회의 변화

[길드(guild)의 조직과 특징]

01. 성립

- 상인, 수공업자들의 경제 활동 공동체(동업 조합)
 - : 공동의 이익과 안전 도모
 - : 노동 시간, 생산 기술, 상품 가격 등을 규정
- 상인 길드
 - : 독점적인 상업 활동, 도시 행정 운영 장악
- 수공업자 길드
 - : 상인 길드에 대항해 결성, 도시 행정 참여
 - : 장인(master), 직인(journeyman), 도제(apprentice)로 구성

✿ 직인과 도제(견습공)

도제는 임금 없이 일정 기간 장인을 보조하며 기술을 배우는 수습생이었다. 도제를 마친 직인은 정식으로 임금을 받고 생산에 종사하였으며, 일정 기간이 지나 길드가 정한 규격에 맞는 작품(Masterpiece)을 제출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길드의 일원이 되어 자신의 작업장을 차릴 수 있었다.

02. 특징

- 생산과 교역의 통제(폐쇄성) → 자유로운 상공업 발달 억제

[서유럽 장원제(莊園制, Manorialism)와 농노제의 해체]

01. 농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 화폐 경제의 발달
 - : 영주가 농노에게 부역 대신 현물이나 화폐 지대 요구
- 곡물 가격 상승, 화폐 가치 하락
 - : 농노의 경제적 지위 상승

✿ 화폐 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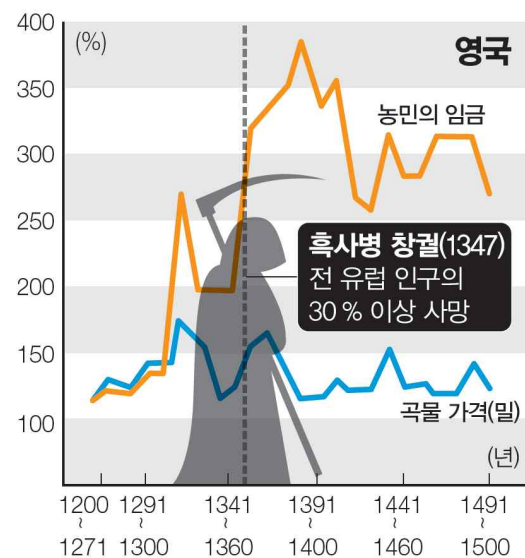
중세에는 농노가 영주의 직영지에 가서 농사를 짓는 노동 지대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영주들이 지대를 화폐로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를 지대의 금납화라고도 한다.

02. 농민의 처우 개선

- 흑사병(검은 죽음의 병, Black Death)의 유행
 - : 유럽 인구의 1/3 감소
- 흑사병의 경제학(그레고리 맨큐)
 - : 노동력 감소로 농민의 임금 상승, 지대 하락

03. 농민 반란

- 봉건 영주들의 농민에 대한 속박 강화
 - : 직영지 확대
 - : 화폐 지대를 부역 지대로 전환
- 자크리[자크(Jacque)의 집합명사]의 난(프랑스, 1358)
 - : 자크 = 농민들이 입는 누비 중백의
- 와트 타일러의 난(영국, 1381)
 - : 인두세 부과에 항의, 농노제 폐지 주장, 성직자 존 볼(John Ball)의 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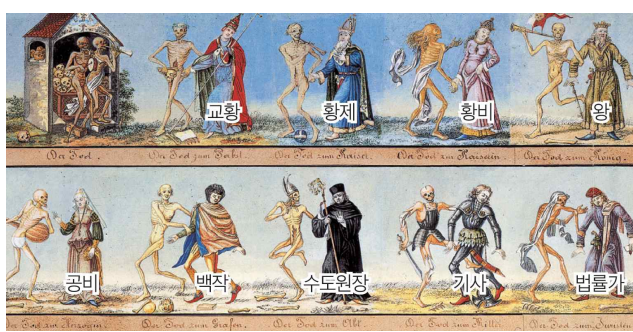
<곡물 가격과 임금 변화>



☆ 길드(guild)

- ① 중세 유럽에서 장인이 되려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견습비를 내고 스승의 집에 기거하면서 기술을 습득하였다. 3년에서 12년이 걸리는 **견습 기간**이 끝나면 **직인**으로서 장인의 곁을 떠날 수 있으며 임금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인이 **장인**으로 독립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가게와 원료를 구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였고 견습공을 돌봐 줄 아내를 얻어야 했으며, 무엇보다도 작품(Masterpiece)을 제출하여 시험에 통과해야만 했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자격을 습득한 장인은 길드에 가입하여 영업을 독점할 수 있었다.
- ② "본 회원은 아침 해 뜰 녀부터 저녁에 교회의 만종이 울릴 때까지 일하며, 그 이상을 일해서는 안 된다. **즉, 회원은 밤에 일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한 회원에게는 벌금을 물릴 것이다.** 1차 위반 시에는 40펜스, 2차 위반 시에는 **시민이 아닌 자는 박차 작업장을 열어서는 안 된다.** 회원은 누구든지 도제(견습공)를 7년 이상 고용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계약 기간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의 직인을 도제로 삼아서는 안 된다."
 - 런던 박차(승마용 구두에 부착하는 쇠)공 길드의 규약

☆ 흑사병으로 인한 유럽 세계의 변화



<흑사병은 남녀노소, 신분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묘사>

(14세기 중엽) 그 무렵 (잉글랜드) 왕은 포고문을 내려, 전국 어디에서나 곡식 거두기를 비롯한 모든 샅을 일꾼들이 보통 때 받던 샅보다 더 많이 받아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법령에 따라 벌을 내릴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러나 일꾼들의 콧대가 높아지고 고집이 세어져서 일꾼들이 국왕의 명령도 아랑곳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쓰려는 사람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품삯을 주어야 했다.

- 존 캐리, 『역사의 원전』

☆ 와트 타일러의 난(1381)

- 모든 사람은 부역과 속박에서 해방되어야 하며, **앞으로 한 사람의 농노도 있어서는 안 된다.**
- 잉글랜드 왕국 내 모든 주·시·정기 시장 등에서 매매의 자유를 부여해야 한다.
- 농노 보유지, 영주 직영지는 1에이커당 4펜스의 지대를 내고 경작할 수 있다. 또 전부터 **그 이하의 지대로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는 앞으로 그 액수를 올려서는 안 된다.**

- ① 14세기에 영국의 영주들이 화폐 지대를 취소하고 부역(賦役)을 부활시키려고 하자, 농민들은 **와트 타일러(?~1381)**를 지도자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당시 농민군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성직자 존 블(?~1381)**은 영주, 농노라는 신분 차별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여 **농노제의 폐지를 요구**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라 반란에 가담한 농민들이 더욱 많아져 그 수가 거의 10만 명에 이를 정도였다.
- ② 반란의 직접 원인은 **백년 전쟁(⇔ 프랑스, 1337~1453)의 전쟁 비용 조달을 위하여** 정부가 15세 이상의 전주민에게 **부과한 인두세에 대한 불만**이지만, 보다 본질적으로는 중세 봉건 지배 그 자체에 대한 농민의 불만이 원인이었다. 14세기 흑사병으로 농촌에서는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영주들은 지난 몇 세기 동안 크게 진전되어 온 농노 해방 과정을 중지시키고, 차지인들에게 옛날의 무거운 노동 부역을 다시 부과하려 하였다. 자유 임금 노동자는 노동력 부족을 틈타 임금 상승을 요구하였고, 정부는 이에 탄압적으로 대응하여 임금을 예전 수준으로 동결시키려 하였다. 그러한 조치는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다.

개념 Check

- 1 교황 우르바누스 2세는 1095년 () 공의회에서 성지 회복을 위한 전쟁을 호소하였다.
- 2 제1차 십자군은 성지를 회복하고 1099년 () 왕국을 건설하였다.
- 3 ()이 유행하면서 인구가 줄어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영주들은 농민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 4 봉건 영주들의 농민에 대한 속박 강화에 대응하여 ()년 자크리의 난, ()년 와트 타일리의 난이 일어났다.
- 5 중세 도시의 상공업자들은 재력 또는 무력으로 특허장을 획득하여 ()을 행사하였다.

유형 CHECK!!

01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전쟁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3-수능]

이슬람력 588년 사반월 22일, 술탄의 사절단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잉글랜드왕의 처소를 방문하였다. 병원 기사단과 성전 기사단 및 모든 프랑크인 지휘관들이 평화 협정에 동의하였다. 다음날 아침, 왕의 사절단은 술탄의 처소로 가서 정해진 원칙에 따라 협정을 체결하였다. 술탄은 이로써 예루살렘 순례길이 열렸음을 공표하였다. 하지만 그는 진정으로 협정을 원한 것은 아니었다. 이슬람 군대가 지쳐서 프랑크인들과 벌여 온 싸움을 계속하는 것에 불복하려는 조짐이 있었기에, 전략상 협정 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 1 파르티아의 멸망 요인을 분석한다.
- 2 농촌에서 콜로나투스가 확산된 원인을 파악한다.
- 3 영국에서 노르만 왕조가 성립된 이유를 찾아본다.
- 4 베르딩 조약과 메르센 조약의 체결 과정을 알아본다.
- 5 지중해 지역의 원거리 무역과 상업 발전의 배경을 조사한다.

02

다음 사건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2-9월 모의평가]

콘스탄티노폴리스, 안티오크를 거쳐 예루살렘에 도착한 크리스티교도들은 그곳을 40여 일간 포위하였다. 그들은 성 주변에 두 개의 공성탑을 세웠다. 우리 무슬림들이 그중 하나를 불태우고 그 위에 있던 크리스티교도들을 죽이며 맞섰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다른 방향으로부터 함락되었음을 알리는 전령이 도착하였다. 크리스티교도들은 금요일 아침에 예루살렘의 북쪽 방향에서 도시를 점령하였던 것이다.

- 이븐 알 아시르, 『역사원본』

- 1 십자군이 라틴 제국을 건설하였다.
- 2 펠리페 2세가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
- 3 훌라구의 몽골군이 이슬람 세계를 침공하였다.
- 4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4세가 파문당했다.
- 5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클레르몽 공의회를 개최하였다.

03

밑줄 친 '동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수능]

튀베크는 절친한 벗 함부르크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동맹을 체결한다.

- 강이나 바다에서 해적의 습격을 당했을 때 그들을 격퇴하기 위해 공조한다.
- 범죄자에 대한 체포권과 처벌권을 공유한다.
- 가맹 도시의 시민에게 상업 활동을 공정하게 하지 않은 자는 해당 가맹 도시로 압송하여 처벌한다.

- ①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 ② 발트해와 북해 무역을 주도하였다.
- ③ 정크선을 이용하여 아라비아와 통상하였다.
- ④ 고아, 플라카 등에 무역 거점을 마련하였다.
- ⑤ 바타비아(자카르타)를 중심으로 아시아와 교역하였다.

04

(가), (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2-수능 특강 p.88, 04번]

(가) 짐 우르바누스는 신의 허락으로 교황의 삼중관을 쓰고 전 세계에 대한 영적인 지도자의 직함을 받았기에 ……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동쪽에 있는 형제들에게 급히 도움을 주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주 요청했던 것이지요.

(나) 베네치아에서 출발하여 도착한 십자군이 이 도시를 약탈하였다. 성 소피아 성당의 제단을 조각내어 병사들에게 분배하였다. 거룩한 그릇들과 금은의 장식들이 떼어졌을 때, 그들은 나귀와 짐 부리는 말을 교회 안에, 심지어는 성소까지 끄고 들어왔다.

- ① 30년 전쟁이 발발하였다.
- ② 보름스 협약이 체결되었다.
- ③ 존왕이 대헌장을 승인하였다.
- ④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졌다.
- ⑤ 카노사의 굴욕 사건이 일어났다.

크리스트교 세계의 변화

★교황권의 쇠퇴

01. 배경

-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종교적 열기 약화
- 교회 내부의 부패, 봉건 질서의 동요로 왕권 신장

02. 아비뇽 유수(론 강가, 1309~1377)

- 교회와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
 - :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 ⇔ 프랑스 왕 필리프 4세
- 필리프 4세(카페 왕조, ㉑ 재위 1285~1314)
 - : 삼부회(삼신분회) 소집(1302) → 성직자에 대한 과세 승인
 - : 아나니 사건(1303. 9월)
- 교황 클레멘스 5세(㉒ 재위 1305~1314)
 - :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옮겨짐 → 프랑스 왕이 교황청 통제



〈끌려가는 교황 클레멘스 5세〉

03. 교회의 대분열(Schisma, 1378~1417)

- 교황청이 로마로 귀환
 - : 로마(우르바누스 6세), 아비뇽(클레멘스 7세)에서 각각 교황이 선출되어 정통성을 두고 대립
- 피사 공의회 개최(1409)
 - : 새로운 교황(알렉산드르 5세) 선출 → 3명의 교황이 동시 재위

04. 교회에 대한 비판과 개혁의 움직임

- 영국의 위클리프(1320~1384)
 - : 교회의 세속화, 성직자의 타락 비판
 - : 『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 강조
 - ↳ ‘『성서』에 교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없다!’
 - : 인간과 신(神)의 직접적 관계 강조
- 보헤미아의 후스(1372~1415)
 - : 성직 매매 등 교회의 세속화 공격
 - : 성서 지상주의와 예정설(→ 칼뱅 계승)
 - ↳ 종교 개혁의 선구적 역할
 - : 보헤미아의 독립 운동, 농민 운동에 영향



〈화형 당하는 후스〉

05. 콘스탄츠 공의회(1414~1418)

-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재위 1411~1437) 제안으로 교황 요한 23세가 소집
- 교회의 대분열 수습
 - :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후스 화형 → 교회의 개혁 움직임 저지
 - : 새로운 단일 교황(마르티노 5세) 선출 → 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



☆ 크리스티교 세계의 변화

시기	구분	내용
4세기	포교	①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티교 공인 ②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아타나시우스파 승인 ③ 392년,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크리스티교 국교 지정
5~10세기	왕권과 제휴	① 496년, 클로비스의 개종(아리우스파 → 아타나시우스파) ② 726년, 비잔티움의 황제 레오 3세의 성상 숭배 금지령 ③ 756년, 피핀의 라벤나 지방 기증 → 교황령의 시초 ④ 800년, 카를루스 대제의 서로마 황제 대관(戴冠) ⑤ 962년, 오토 대제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 대관
11세기	분열 왕권과의 대립	① 1054년, 동서 교회의 분열 ② 1075년, 그레고리우스 7세의 교황령 ③ 1077년, 카노사의 굴욕 : 주교 서임권 문제, 그레고리우스 7세 ⇄ 하인리히 4세
11~13세기	교황권의 확대	① 1095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클레르몽 공의회 소집 ② 1096년, 십자군 전쟁 시작(~1270) ③ 1122년, 보름스 화약으로 교속 서임권 투쟁 일단락 ④ 1198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재위 1198~1216) : 교황권의 전성기(교황은 태양, 황제는 달) : 제4차 십자군 전쟁(1202~1204) : 존 왕 파면(1209)
14~16세기	교황권의 쇠퇴	① 아비뇽 유수(1309~1377) : 프랑스 왕이 교황청 통제 ② 교회의 대분열(Schisma, 1378~1417) : 교황청이 아비뇽에서 로마로 귀환 : 로마, 아비뇽에서 각각 선출된 교황의 대립 ③ 후스(1370~1415), 종교 개혁의 선구 ④ 콘스탄츠공의회(1414~1418) : 교회 대분열 수습 → 로마 교황의 정통성 인정 : 위클리프(1320~1384) 이단 규정, 후스 처형 ⑤ 루터의 종교 개혁(95개조 반박문, 1517)

☆ 콘스탄츠 공의회의 선언

첫째, 이 모임은 성경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공의회를 구성하며 가톨릭교회를 대표한다.** 따라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그 권위를 받으며, 교황 자신을 포함하여 어떤 계급과 조건에 속한 어떤 사람이라도 신앙, **대분열의 종식**, 신의 교회를 머리에서 팔다리와 몸까지 개혁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서 공의회에 복종해야만 한다.

☆ 위클리프, 『교황에 대한 저항』

현재 교황은 예수의 바른길을 밟지 않고 사탄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예수께서 교황청이나 추기경 회의를 설립하셨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다. 예수께서는 반드시 교황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를테면 백 명의 교황이 있고 모든 수도사가 추기경이 된다고 해도 **신앙에서 성서와 일치할 때만 찬성해야 한다.**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

[왕권의 강화]

01. 배경

- 교황권의 쇠퇴
 - 봉건 영주의 세력 약화
 - 도시 상공업자들의 성장과 협조
- : 국가 재정 지원, 국왕의 관리로 봉사, 신분제 의회 참여

02. 내용

- 사법권과 과세권 확대
- 상비군과 관료 양성 → 필요 재원은 도시 상공업자들의 세금으로 충당

[유럽 각국의 변화]

01. 영국(왕권 강화와 의회 정치 발전)

* 노르만 왕조(1066~1153)

* 플랜태저넷 왕조(1154~1399)

- 앙주 백작 헨리 2세 개창 → 리처드 1세(사자 왕, 재위 1189~1199)의 왕위 계승

• 존 왕(실지 왕, 재위 1199~1216)

: 프랑스와 전쟁 ⇨ 재정 악화 ⇨ 과중한 세금 부과 ⇨ 귀족의 반발

: 대헌장(Magna Carta, 1215) 승인

제1조 잉글랜드 교회는 자유로우며, 그 권리를 완전히 보유하며, 그 자유를 침범당하는 일이 없음을 짐과 짐의 후계자들을 위해 영구적으로 확인하는 바이다.

제12조 군역 면제금과 보조금은 짐의 왕국 전체의 자문에 의하지 않고는 짐의 왕국에서 부과되지 않는다.

제39조 모든 자유인은 자신과 같은 신분의 사람에 의한 합법적 재판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빼앗기지 않고 법의 보호를 박탈추방되는 등 어떤 식으로도 해를 입지 않는다.

- 헨리 3세(재위 1216~1272)

: 존 왕의 아들, 대헌장의 원리 무시

: 시몽 드 몽포르의 반발 → 귀족과 성직자 및 시민의 대표 소집, 시몽 드 몽포르 의회(1265)

- 에드워드 1세(재위 1272~1307)

: 모범 의회 소집(1295) → 신분제 의회의 기틀 마련

- 에드워드 3세(재위 1327~1377)

: 카페(Capetian) 왕조 혈통[에드워드 2세(父) ~ 프랑스의 이자벨라(母, 필리프 4세의 딸)]

: 프랑스 왕위 계승에 대한 부당성 주장 → 백년 전쟁(1337~1453) 유발

: 양원제 의회 제도의 기틀 마련(1341)

↳ 귀족원(성직자·귀족)과 서민원(기사·시민 대표)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

[유럽 각국의 변화]

02. 프랑스

- ❁ 카페 왕조(전형적인 봉건 정치 체제, 987~1328)
 - 루이 6세(전투 왕, 재위 1108~1137)
 - : 파리 귀족과의 교전을 통해 왕권 신장
 - 필리프 2세(존엄 왕, 재위 1180~1223)
 - : 영국의 존 왕과 싸워 승리 → 프랑스 안 영국령의 대부분 획득
 - : 제4차 십자군 전쟁 주도
 - 필리프 4세(단려 왕, 재위 1285~1314)
 - : 교황과 맞서 삼부회 소집(1302), 아비뇽 유수와 교황 통제

03. ★백년 전쟁[영국 ⇄ 프랑스 발루아 왕가(*필리프 6세, 장 2세, *샤를 7세), 1337~1453]

- 플랑드르 지방의 확보, 프랑스 내 영국령의 지배권을 둘러싼 대립, 1328년 샤를 4세의 죽음 이후 영국 왕 에드워드 3세(재위 1327~1377)의 프랑스 왕위 계승 주장
- 크레시 전투·푸아티에 전투(영국 勝) ⇄ 잔 다르크의 활약(오를레앙 전투, 1429)으로 프랑스 승리
- : 프랑스 → 통일된 영토 확보,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발판 마련



〈튜더 왕조의 탄생〉

04. 장미 전쟁(1455~1485)

- 영국 내의 왕위 계승 문제[랭커스터 왕가(흑장미) ⇄ 요크 왕가(백장미)]
 - : 랭커스터 왕가의 헨리 6세가 요크 왕가의 리처드 3세 격파하며 승리
- 튜더 왕조 개창(1485~1603)
 - : 헨리 7세(랭커스터 왕가)와 엘리자베스(요크 왕가)의 혼인
 - : 헨리 7세(재위 1485~1509) → 귀족 세력의 몰락 이용, 절대주의의 기초 마련

05. 독일 지역(분열 상태 지속)

- 신성 로마 제국(962~1806) 황제의 명목상 통치
- 봉건 제후의 강력한 세력 유지
- : 대공위 시대(1256~1273) → 명목상의 국왕만 있을 뿐 실질적인 지배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기
- : 황금 문서(1356) → 7명의 유력한 제후(Domini Terrae)의 황제 선출 권한 인정



❁ 황금 문서(Goldene Bulle)

-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7명의 선제후가 선거로 뽑는다.
- 선거에 참여하는 선제후들은 재판권, 광산 채굴, 화폐 주조, 관세 징수 등의 특권을 가진다.
- 제후의 영지는 만아들에게 일괄 상속하고, 영지에 대한 제후의 지배권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4세(재위 1347~1378)가 발표한 제국법이다. 황금으로 만든 도장을 사용하여 금인칙서(金印勅書)라고도 한다. 7선제후가 황제 선거권을 독점하여 제국의 실권이 지방 세력의 수중에 넘어가 독일 지역의 분열을 촉진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중앙 집권과 왕권 강화에 역행).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

[유럽 각국의 변화]

06. 이탈리아반도

- 신성 로마 제국의 간섭 아래 **교황령**, 베네치아·피렌체 등 **도시 국가**, **나폴리 왕국** 등으로 분열
- 신성 로마 제국 황제와 로마 교황의 대립으로 통일 국가 형성 지연

07. 이베리아반도

- ✿ 12세기 아라곤, 카스티야 등 강력한 크리스토포 국가 건설
- ✿ **에스파냐 왕국**
 - 페르난도(아라곤)와 이사벨(카스티야)의 결혼(세기의 결혼식, 1469)
 - **이슬람 최후의 거점인 그라나다 정복**(레콘키스타 완결, 1492)으로 통일 국가 완성
- ✿ 포르투갈
 - **카스티야로부터 독립**(1143)
 - 16세기 대항해 시대의 주역
 - : **해외 진출 확대와 인도 항로 개척**(1498)



<프랑스와 에스파냐의 영토 변화>

✿ 러시아

- ✿ 9~13세기 키예프 공국(日 公國)
 - 동슬라브족 지배
 - 키릴 문자 사용
 - 그리스 정교 수용(**키예프의 성 소피아 성당** 건설)
- ✿ 13세기 주치 울루스(킵차크한국)의 지배
- ✿ 모스크바 대공국(Moskovskoye Velikoye Knazhestvo)



<성 바실리 성당>

- 이반 3세(재위 1462~1505)
 - : 몽골 축출(1480)
 - : 비잔티움 황제의 계승자 자처(→ 쌍두 독수리 문양)
 - : 모스크바(그리스 정교의 중심지, 제3의 로마)
- 이반 4세(= 번개 왕, 재위 1533~1547 · 1547~1584)
 - : 차르(tsar) 칭호 사용(1547)
 - : 귀족 숙청으로 전제 정치의 기틀 마련
 - : 성 바실리 성당 축조(1561)
 - ↳ 비잔티움 양식, 몽골족 격퇴 기념

✿ 폴란드

- 왕국 재건(1320)
- 리투아니아 대공국과 혼인 → 야기에우워 왕조 수립(1385~1569)

개념 Check

- ①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와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성직자 과세 문제로 대립하였으며, 이후 () 유수가 일어났다.
- ② () 공의회는 위클리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를 화형에 처하였으며, 새로운 단일 교황을 선출하였다.
- ③ 발루아 왕가의 왕위 계승 문제, 플랑드르 지방과 프랑스 안의 영국령에 대한 지배권 문제 등으로 () 전쟁이 일어났다.

유형 CHECK!!

01

(가), (나) 국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수능]

샤를 4세의 사망 이후 왕위 계승이 불분명해진 상황 속에서 [가]의 에드워드 3세는 [나]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였다. 자신의 모친이 샤를 4세의 누이라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여성은 왕위 계승권이 없으며, 따라서 그녀의 아들 역시 왕위 계승권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양국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었고 결국 전쟁이 발발하였다. 초기에는 [가]이 우세하였으나 잔 다르크 등의 활약으로 [나]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 ① 메르센 조약을 통해 영토를 분할하였다.
- ② 미국의 중재로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③ 플랑드르에 대한 지배권을 둘러싸고 대립하였다.
- ④ 방공 협정을 체결하여 추축국 동맹을 결성하였다.
- ⑤ 지중해 해상권을 두고 레판토 해전에서 격돌하였다.

02

밀줄 친 ㉠ 시기에 발생한 사실로 옳은 것은?
[2021-수능]

그레고리우스 교황 성하
지난밤 꿈에서 신께 받은 계시를 아뢰옵나이다. 바라건대 세속의 욕망을 내려놓으시고 신의 뜻을 실현하는 데 헌신하십시오. 이를 위해 먼저 론 강가의 기괴한 성채를 떠나 하루바삐 로마로 돌아가 시어 어린 양들을 보살피 주십시오. 또한 크리스티 교도 사이의 분쟁에 동원된 용병들을 이슬람 세력에 맞서는 데 이용하시어 교황의 위엄을 만방에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보니파키우스 8세가 능멸당한 이래로 지난 70여 년 동안 ㉠오욕으로 점철된 세월을 정결하게 씻어 내어 주십시오.
- 시에나의 카타리나

- ①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위클리프와 후스가 이단으로 규정되었다.
- ② 신성 로마 제국의 하인리히 4세가 서임권 문제로 파문당하였다.
- ③ 황제와 교황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져 보름스 협약이 체결되었다.
- ④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하고 라틴 제국을 수립하였다.
- ⑤ 플랑드르, 프랑스 내 영국령 등의 지배를 둘러싼 전쟁이 벌어졌다.

03

(가) 국가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2-수능 특강 p.89, 06번]

[가]의 침략으로 인한 혼란 속에 우리 왕국은 병들어 가며 무너지고 도둑과 강도가 들끓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나라의 귀족들은 적으로부터 프랑스를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수많은 백성을 억압하고 재산을 약탈하였습니다. 플랑드르에 대한 지배권 등을 차지하려는 [가]이/가 우리를 짓밟고 있음에도 나라를 지키려는 진정한 수호자가 없으므로, 프랑스 전역은 혼란과 비통함으로 물들었습니다.

- 장 드 베네트, 『연대기』

- ① 장미 전쟁이 일어났다.
- ② 자크리의 난이 발생하였다.
- ③ 베네치아, 피렌체 등의 도시가 성장하였다.
- ④ 예카테리나 2세가 내정 개혁을 추진하였다.
- ⑤ 고이센을 중심으로 독립 전쟁이 전개되었다.

04

밀줄 친 '대립'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22-수능 특강 p.90, 07번]

지금까지 이어져 온 대립을 종식시킬 첫 번째 방법은 아비뇽 교황 측과 로마 교황 측 모두 자신들이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주장하는 모든 권한을 완전히 포기하고 사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방법은 만약 양측이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자신들의 권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사임하길 거부한다면, 우리는 중재안을 제안할 것이다. 즉, 양측은 신망 있고 적합한 사람들을 함께 선택하거나 혹은 그런 사람들이 통상적이고 교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택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후 그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모든 권한과 권력을 주어야 한다. 만약 필요하고 적절하다면 교회법에 근거할 때 권한이 있는, 즉 추기경들이 인정한다면 그들이 교황 선출을 추진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

- ① 우신예찬을 읽고 있는 지식인
- ② 위클리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신도
- ③ 트리엔트 공의회에 참석하는 성직자
- ④ 과세 문제로 필리프 4세와 대립하는 교황
- ⑤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체결에 기뻐하는 제후

봉건 사회의 변화



[르네상스(부활·재생, Renaissance)]

01. 배경

- 14~15세기 봉건 사회의 질서 동요와 교회의 권위 쇠퇴
- 인간의 개성과 합리성, 세속적 욕구를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 문화에서 찾으려는 문화 운동 등장

02. 성격

- **인문주의적 근대 문화 창조 운동**
- 크리스토프, 봉건 제도의 속박에서 벗어나 인간의 자유와 개성 존중
- 문화 분야에서 경제·사회·정치 분야로 확대

[이탈리아의 르네상스(14세기~)]

01. 배경

- 옛 로마 제국의 중심지로 고전 문화의 전통 유지
-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경제적 번영
 - : 베네치아(Venezia, Venice), 피렌체(**메디치 가문**)
 - : 군주와 상인 가문이 명예를 높이기 위해 문예 후원
- 지식과 문화 교류에 유리한 지리적 특징
- **비잔티움 제국 학자들의 이탈리아 피신**
 - : 고전 문화를 활발하게 연구
- 현세 중심적, 개인주의적 의식 구조 확산



〈로렌 초 데 메디치의 초상〉

02. 특징

- **인문주의(어원 humanitas, 휴머니즘) 및 예술 분야 발달**

봉건 사회의 변화

[이탈리아의 르네상스(14세기~)]

03. 인문주의자

단테 (1265~1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후의 중세인, 국민 문학의 선구자, 중세와 근대의 교량 역할 • 『신곡』 저술(이탈리아어), ‘모국어는 금(金)이요, 라틴어는 은(銀)이다.’
페트라르카 (1304~13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의 인문주의자, 서정시를 통해 인간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 • 『칸초니에레』(서정시 모음)
보카치오 (1313~137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데카메론』(근대 소설의 효시, 1349~1353) : 흑사병을 배경으로 10명의 남녀가 교외 별장에서 10일간 나눈 이야기 : 사회의 타락상과 인간의 위선 풍자
마키아벨리 (1469~15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주론』(1513) :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해 정치를 종교·도덕에서 분리시키자고 주장 : 강력한 군주의 출현 주장 ⇨ 프리드리히 2세(재위 1740~1786), 『반(反) 마키아벨리론』

✿ 군주에게 필요한 자질

- 인색하다 또는 잔혹하다는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한다.
- 함정을 알아채는 여우의 꾀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사자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
-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들을 언제나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04. 미술과 건축

1) 미술

-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정신 표현(**심미적 특징**)
- 유화, 캔버스 사용, 원근법 등 미술 기법 발전
- **자연과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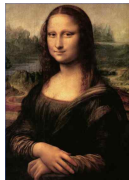
보티첼리	1445~1510	• 비너스의 탄생 , 동방박사의 경배
레오나르도 다빈치	1452~1519	• 최후의 만찬, 모나리자
미켈란젤로	1475~1564	• 최후의 심판, 다비드상 , 피에타, 아담의 창조
라파엘로	1483~1520	• 마돈나 상(성모상) • 아테네 학당 (바티칸 성당, 문서의 방, 아카데미아)

2) 건축

- **르네상스 양식** 발전
: 그리스의 열주(colonnade, 列柱), 로마의 아치와 돔(dome)
: 피렌체 성당(=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바실리카, 1436)
: **성 베드로 성당**(= 산피에트로 대성당·바티칸 대성당, 1506)



〈비너스의 탄생〉



〈모나리자〉



〈피에타〉



〈아테네 학당〉



〈성 베드로 성당〉

중세 유럽 세계의 변화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16세기~)]

01. 배경

- 신항로 개척으로 무역 중심지의 대서양 이동 → 르네상스의 토대 마련

02. 특징

- 봉건 세력과 교회의 영향력이 강성
: 크리스트교적 인문주의 발달
- 현실 사회와 교회 비판, 초기 크리스트교로 돌아갈 것을 주장 → 종교 개혁에 영향

03. 각국의 르네상스

네덜란드	<u>에라스무스</u>	1466~15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우신예찬</u>』(1511) : 교회의 허식과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
영국	<u>토머스 모어</u>	1478~15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유토피아</u>』(1516) : 부조리한 현실 사회 비판과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 사회 묘사

04. 미술

- 반에이크 형제의 유화 기법 개발
- 브뤼헬(농민의 춤, 농가의 혼례), 홀바인(초상화)
- 엘 그레코(그리스 출신, 종교화)



〈농가의 혼례〉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

05. 문학

- 중세어(라틴어)에서 벗어나 모국어로 쓴 국민 문학 발달
: 셰르반테스(1547~1616), 『돈키호테』(1605)
: 셰익스피어(1564~1616), 『햄릿』·『오셀로』·『리어왕』·『맥베스』

[15~16세기 과학 기술의 발달과 사회 변화]

01. 배경

- 관찰과 탐구 정신, 중국에서 전래된 과학기술의 개량

02. 과학 기술 발달에 따른 사회 변화

화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승총·대포 사용 → 봉건 기사의 몰락 촉진, 상비군 등장 및 군사비 지출 증가
천문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코페르니쿠스</u>(1473~1543)의 지동설 주장 : 『<u>천체의 회전에 관하여</u>』(1543) →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 기초한 중세의 우주관 비판
인쇄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텐베르크(?~1468)의 <u>활판 인쇄술</u>(1455) :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의 확산에 기여
나침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거리 항해에 이용 → 신항로 개척 등 유럽 세계의 팽창에 기여



〈코페르니쿠스의 천구도〉



르네상스의 비교

	이탈리아(14세기)	북유럽(16세기)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와 상업 발달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 로마의 문화유산 잔존 지중해 무역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세 교회의 권위 존재 봉건 제도의 영향력 유지 초기 크리스티교 연구 신항로 개척으로 대서양 무역 발달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실적·세속적 성향, 문예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크리스티교적 인문주의 발달
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뤼헬, 홀바인, 반에이크 형제, 엘 그레코



<유럽의 르네상스>

이탈리아,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

- 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내가 숙녀들의 환심을 사려고 애쓰는 것이 밉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네 숙녀들을 좋아하는 나의 타고난 본성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숙녀를 좋아하고, 또한 그네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나도 틀림없는 사실로서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나는 대체 그것이 무엇이 나쁘냐고 묻고 싶습니다. 만일 그들이, 숙녀분들이 때때로 허락해 주는 사랑에 넘친 입맞춤, 달콤한 포옹, 그리고 그 형언하기 어려운 우아함과 정숙함에 조금이라도 도취될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나쁘다는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 보카치오, 『데카메론』
- ② 성 베드로가 복음서에서 "우리는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나이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황들은 그를 위한답시고 영토와 도시와 공물과 통행세 등으로써 세습 재산을 만들어 하나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애정에 불타는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칼과 불로 싸움으로써 크리스티교의 피가 강물처럼 흐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적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을 토막내고 있을 때에도 그들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수호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 에라스무스, 『우신예찬』
- ③ "그렇게 온순하고 조금씩만 먹던 양들이 요즘에는 지나치게 많이 먹고 또 사나워져서, 과장하면 인간들까지 다 먹어 치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싼 양털을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귀족과 신사, 성직자인 수도원장까지도 백성들의 경작지를 빼앗아 온통 목장 울타리로 둘러싸 버렸기 때문입니다."

- 토머스 모어, 『유토피아』

봉건 사회의 변화

[종교 개혁의 배경과 선구]

01. 배경

- 교회의 부패와 일부 성직자의 타락
- 알프스 이북의 인문주의자들이 『성서』의 정신에 따른 교회 개혁 주장
- 인간 중심적 사고와 합리적 세계관의 확산

02. 선구

1) 위클리프(1320~1384)

- ‘교회 재산을 세속 정부에 돌려주어야 한다.’ 고 주장
- 교회 세속화 비판,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고 『성서』에 기반을 둔 신앙 강조

2) 후스(1372~1415)

-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보헤미아의 사제(司祭)
- 구령(救靈, 신앙의 힘으로 영혼을 구원) 예정설 주장, 『성서』의 체코어 번역
-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처형(1415) → 후스 전쟁(보헤미아 왕국, 1419~1436)

[★루터(1483~1546)의 종교 개혁(비텐베르크)]



〈산피에트로 대성당〉

01. 계기

- 독일 지역(교황의 쪼갬, 교황청의 착취 집중)
- 교황 레오 10세(재위 1513~1521), 성 베드로 성당의 증축을 위해 면벌부(Indulgence) 판매
⇨ 루터, ‘95개조 반박문’ 발표(1517)

02. 주장

- 인간은 오직 신앙과 신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제되는 것
- 신앙의 근거는 『성서』(→ 교황과 교회의 권위 부정), 『성서』의 독일어 번역

03. 전개

- 보름스 제국 의회[카를 5세(재위 1519~1556), 1521]에서 루터의 법적 보호 지위 박탈
- 영방 제후들의 지지
- 슈말칼덴 전쟁(루터파 ⇨ 교황파, 1546~1555)

04. 결과

- 아우크스부르크 회의 체결(1555)
: 제후와 도시 지배자들의 종교 선택권 인정, 루터파 승인
- 북부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전파

✿ 아우크스부르크 회의(1555)

개인이 아닌 제후와 자유 도시가 루터파와 가톨릭교회 사이에서 종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교황의 지배를 벗어난 새로운 교회가 처음으로 인정받았다.

통건 사회의 변화

★칼뱅(1509~1564)의 종교 개혁(제네바)

01. 전개

- 프랑스에서 루터 교회를 탄압하자 스위스로 망명하여 츠빙글리의 교리 연구
-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 추진(1536)

02. 내용

- 성서 중심주의
 - : 『성서』에 나와 있지 않은 교리와 의식 배격
- 『크리스트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저술(1536)
 - : 예정설 주장(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
 - : 직업소명설(근면하고 검소한 직업 생활을 강조하여 자본주의 정신 형성에 기여)
- 장로제(gerontocracy) 도입
 - : 신도들의 자율적인 교회 운영
- 신의 의지에 반하는 세속 권력에 저항 → 시민 혁명 주도

✿성서 중심주의(신앙 중심주의)

신앙의 근거는 교회나 교황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내용에 있다는 주장이다.

03. 신용 상공업자의 호응과 전파

- 프랑스(위그노), 스코틀랜드(장로파), 잉글랜드(청교도), 네덜란드(고이센) 등지로 확산

[영국의 종교 개혁]

01. 배경

- 헨리 8세가 왕비 캐서린과의 이혼 문제로 교황 클레멘스 7세와 대립
- 종교적 원인보다 정치적·경제적 동기

02. 전개

- 헨리 8세(재위 1509~1547)
 - : 수장법(Act of Supremacy) 공포(1534)
 - ↳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首長)임을 선포
 - : 수장령에 반대하던 토머스 모어 처형(1535)
 - : 수도원 해산, 교회의 토지와 재산 몰수
- 메리 1세(재위 1553~1558)
 - : 수장법 폐지
 - : 가톨릭교회 부활 운동 전개
- 엘리자베스 1세(재위 1558~1603)
 - : 통일법(Act of Uniformity) 반포(1559)
 - : 영국 국교회 확립
- 가톨릭교 의식에 신교 교리 결합



<16세기 유럽의 종교 분포>

통건 사회의 변화

[로마 가톨릭교회의 대응]

01. 가톨릭교회 내부의 개혁

- 예수회(1534)
: 에스파냐의 신부 로올라(1491~1556)가 설립
: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톨릭 선교 활동 전개

02.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 교황과 교회의 권위를 재확인하며 신교 확산 방지
- 교회의 내부 정화를 통한 악습과 폐단 시정 노력
- 5세기 라틴어 불가타(벌게잇) 성경의 권위 인정
- 교회 내부의 결속 강화
: 종교 재판소 강화(1542~), 금서 목록 작성
: 예수회 정식 승인

✿ 트리엔트 공의회(Council of Trent)

교황(바오로 3세~바오로 4세)의 주재 아래 3회기에 걸쳐 열린 공의회로 면벌부(免罰符)를 사고파는 행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공의회는 교황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세례와 미사의 중요성 및 사제의 독신 의무를 역설하는 한편, 라틴어 불가타 성경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구교(로마 가톨릭) ⇔ 신교(프로테스탄트)의 종교 전쟁]

01.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1562~1598)

- 부르봉 가(家)의 위그노 ⇔ 기즈 가(家) 중심의 가톨릭교도, 성 바르톨로메오 축일의 대학살(1572)
- 앙리 4세(재위 1589~1610)의 낭트 칙령(Edict of Nantes, 1598)
: 위그노에게 제한된 지역에서의 예배의 자유가 허용, 산업 발달의 계기 마련

02. ★네덜란드 독립 전쟁(1568~1648)

- 신항로 개척 이후 경제력의 성장으로 무역과 상공업 발달
- 에스파냐 펠리페 2세(재위 1556~1598)의 가톨릭 강화 정책
: 고이센(Geusens) 주도 아래 에스파냐와 전쟁
: 북부 7개주[위트레흐트 동맹(Union of Utrecht, 1579)]의 독립 선언(1581)
: 베스트팔렌 조약(1648)으로 독립 달성

03. 30년 전쟁(1618~1648)

- 신성 로마 제국 내(內) 보헤미아 신교도의 반란
- 국제 전쟁으로 확대
: 영국·덴마크·스웨덴·프랑스(신교) ⇔ 보헤미아·에스파냐(구교)
- 베스트팔렌 조약(1648)
: 개인의 신앙 자유 승인 → 칼뱅파 허용
: 스위스(from 신성 로마 제국), 네덜란드(from 에스파냐)의 독립
: 프랑스의 알자스·로렌 차지
: 신성 로마 제국의 정치적 분열 심화

✿ 베스트팔렌 조약(1648)

조약은 합스부르크가의 세습 영토를 제외한 신성 로마 제국 내 소수 종파의 사적인 예배 의식과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아울러 조약 체결로 인해 신성 로마 제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에스파냐, 프랑스 등이 참여하였던 30년간의 전쟁이 종식되었다.



☆ 지문 확인

①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제6조 교황은 신의 용서를 확증하는 이외에 어떠한 죄도 용서할 수 없다.

제20조 교황이 모든 벌을 면제한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모든 벌이 아니라, 단지 교황 자신이 내린 벌을 면제한다는 것뿐이다.

제27조 그들은 헌금 상자에 던진 동전 소리를 듣고 죽은 자의 영혼이 연옥에서 튀어나온다고 설교한다.

제36조 진실로 회개한 크리스티교도는 면벌부가 없어도 징벌이나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제86조 오늘날 최고의 부자보다도 더 부유한 교황은 어째서 자신의 돈이 아닌, 가난한 신자의 돈에 의지하여 성당을 개축하려 하는가?

② 칼뱅의 예정설

일찍이 신께서는 당신의 영원불변한 섭리를 통해서 구제해 주시고자 하는 자들과 파멸에 빠뜨리고자 하는 자들을 결정 하셨다. 선택된 자들에게 이와 같은 섭리는 인간의 자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신의 자비에 근거한 것이며, 또 반대로 신께서 지옥에 떨어뜨리시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음을 뜻하는 바이다. 이 모든 것이 은밀하고 알 수 없는 신의 심판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정당하고도 공평하다.

- 『크리스티교 강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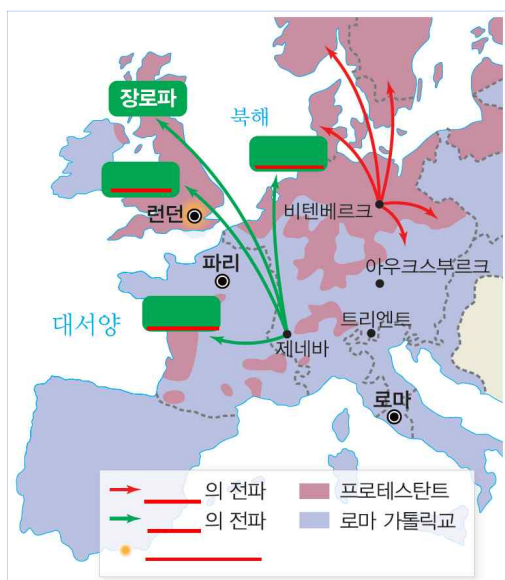
③ 막스 베버,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신이 크리스티교도에게 바라는 것은 그들이 사회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다. …… 그들은 부(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사악하다고 여기면서도 직업 노동의 결과로 부자가 되는 것을 신의 은혜로 여겼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세속적 직업 노동을 조직적으로 해 나가는 것을 최고의 금융적 수단으로 삼고, 또 그것을 올바른 신앙에 대한 확실한 증거로 여긴다는 것이다.”

④ 헨리 8세, 수장법(1534)

“국왕 폐하는 마땅히 법에 따라 실제로 또 법적으로도 영국 교회의 수장(首長)이시다. …… 뿐만 아니라, 영국 교회 수장의 권위에 달려 있는 모든 영예, 존엄, 지위, 재판권, 특권, 면제권, 수익, 재화를 소유하며 향유한다. …… ”

☆ 각국의 종교 개혁



<베스트팔렌 조약(1648)>

1. ㉠은/는 루터파와 동등한 특권을 가진다.
2. 1624년 현재로 신교이든 구교이든 교회 재산을 그대로 유지한다.
3.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재판소에서 루터파와 ㉠은/는 같은 수의 재판관을 두고 재판을 주관한다.
4. 각 제후는 자기 영내에서 실질적으로 독립 주권을 행사한다.
5. 프랑스는 스트라스부르를 제외한 알자스-로렌을 차지한다.
6. ㉡은/는 ㉢(으)로부터, 스위스는 ㉣(으)로부터 독립된 국가임을 인정받는다.

㉠ _____, ㉡ _____, ㉢ _____, ㉣ _____

개념 Check

- ① 보카치오는 『_____』에서 사회의 타락상과 인간의 위선을 풍자하였다.
- ② 이탈리아의 ()는 『군주론』을 저술하여 강력한 군주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③ 에라스무스는 『_____』에서 교회의 형식화와 성직자의 타락을 비판하였다.
- ④ 루터는 교황청의 () 판매를 비판하며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였다.
- ⑤ 1555년 () 화의가 체결되면서 루터파가 인정받게 되었다.
- ⑥ 칼뱅은 『_____』에서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 ⑦ 1534년 헨리 8세의 ()에 따라 영국 교회가 교황으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 ⑧ 종교 개혁 운동이 확산되자 로마 가톨릭교회는 () 공의회를 열어(1545) 교황의 권위와 교리를 재확인하고 폐단을 고치려고 하였다.
- ⑨ 프랑스에서는 ()년 () 칙령으로 위그노에게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예배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 ⑩ () 조약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세력이 약화되면서 제국의 지배를 받던 제후국들은 사실상 독립국이 되었다.

유형 CHECK!!

01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3-6월 모의평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서 나는 이 자리에서 너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것이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주장을 철회하겠느냐?

저의 주장은 성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직 신의 은총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를 뿐, 교황에게는 사람의 죄를 용서할 권한이 없습니다. 면벌부 판매도 부당합니다. 저의 주장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 ① 예수회를 설립하여 선교 활동을 펼쳤다.
- ② 크리스티교 강요를 집필하여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 ③ 데카메론을 저술하여 타락한 사회상을 풍자하였다.
- ④ 우신예찬을 출판하여 성직자의 부패를 고발하였다.
- ⑤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하여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였다.

02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1-수능]

파사우의 주교 블프강에게

나는 보헤미아와 헝가리의 국왕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직무 대행을 맡은 페르디난트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소. 내가 보기에 그의 최근 행위는 유럽의 여러 군주와 선량한 자들의 간절한 염원을 거스르는 것이었소. 즉 페르디난트는 교황 레오 10세의 뜻을 거역한 비텐베르크의 (가)을/를 추종하는 무리와 타협했던 것이요, 아우크스부르크 화의가 바로 그 증거요. 이로써 그들의 신앙이 인정되어 교회의 조화가 깨지고 말았소.
- 교황 파울루스 4세

- ① 교회의 면벌부 판매를 비판하였다.
- ② 예수회를 설립하여 해외 선교에 힘썼다.
- ③ 크리스티교 강요에서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 ④ 우신예찬에서 성직자의 타락상을 풍자하였다.
- ⑤ 클뤼니 수도원의 교회 개혁 운동을 주도하였다.

03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9월 모의평가]

- 교황의 주재로 3회기에 걸쳐 열린 [가]은/는 면벌부를 사고파는 행위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은/는 교황의 권위를 재확인하고 세례와 미사의 중요성 및 사제의 독신 의무를 역설하는 한편, 라틴어 불가타 성경 외에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 [나]은/는 합스부르크가의 세습 영토를 제외한 신성 로마 제국 내 소수 종파의 사적인 예배 의식과 신앙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아울러 [나](으)로 신성 로마 제국,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에스파냐, 프랑스 등이 참여하였던 30년간의 전쟁이 종식되었다.

- ① (가) - 칼뱅파를 인정하였다.
- ② (가) - 신교 확산에 대응하여 개최되었다.
- ③ (나) - 영국 국교회를 확립시켰다.
- ④ (나) - 종교 재판소를 설치하기로 하였다.
- ⑤ (가), (나) - 교회의 대분열을 종식시켰다.

04

(가) 국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2-수능 특강 p.90, 08번]

나는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의심하였고, 종교적인 이유로 고국을 떠나 독일의 비텐베르크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그들의 교리를 좀 더 이해하게 되면서, 진정한 루터파 신자가 되었다. 이후 왕비와의 이혼 문제로 교황청과 갈등을 겪고 있는 [가]와/과 슈말칼덴 동맹의 중개자 역할을 하면서, 루터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이 [가]의 이혼을 지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① 낭트 칙령을 폐지하였다.
- ②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하였다.
- ③ 국왕이 영국 교회의 수장임을 선포하였다.
- ④ 요크가와 왕위 계승 문제로 전쟁을 치렀다.
- ⑤ 러시아,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였다.